

 해양수산부		보 도 자 료	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 일시	2021. 8. 23.(월) 총 1매(본문 1)		
담당 부서	해운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허만옥, 사무관 이슬 • ☎ (044) 200-5710, 5720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출입물류의 정상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

-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협의체(T/F) 가동으로 수송 차질 최소화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HMM 노사 간 임금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운산업 지원 총괄부처로서 수출입물류 정상 가동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
HMM은 노사 간 자율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, 육상(8. 19.)·해상(8. 20.) 노조 모두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. 한편, 양측 노조는 8. 22.~8. 24. 중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.

해양수산부는 8. 23.(월) 12시부터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「수출입물류 비상대책 T/F」를 설치하여 필수업무 기능 유지와 유사 시 수송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입물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
그간 HMM은 노사 양측이 경영정상화를 향해 함께 노력해온 결과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. 해양수산부는 노사 양측이 대립하기보다는 지금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로서, 최근 수출입물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적 원양선사가 가지는 국가 경제적 의미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.

		<p>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,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,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</p>
---	---	--